Book Band 10 . Journeys/Going Places - Riding the Waves

Cover Note?

- 스토리 북의 앞면과 뒷면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읽기 수업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Front Cover Note	
Before reading (책을 읽기 전)	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 책의 앞뒤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이 무엇일지 이야기해보세요. • 3 쪽을 펴 보세요. 새로운 캐릭터가 있는지 한 번 보고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 책의 나머지 부분을 훑어보면서 그림을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는 맥스와 타이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Tricky words (헷갈리는 단어)	Here are some tricky words that your child will read in this book: 다음은 아이가 책에서 처음 접하게 되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seatbelt(안전벨트)/argued(다투다)/campsite(캠핑장)/exersise(운동) / collapsed(무너지다) / dunes(모래언덕) / surfing(서핑) / competition(시합)

Back Cover Note	
After reading (책을 읽은 후)	책을 읽은 후 아이와 같이 이야기 해 보세요. 아래의 질문을 물어보세요: • 맥스와 타이거가 마이크로-서핑을 할 때 서핑보드로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 맥스와 타이거가 안전한 곳에서 서핑하고 있을 때 물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요? •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토비와 토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타이거, 맥스, 토비가 이기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나요? 왜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왜 그러가요?

	아이가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지도해주세요. 읽기에 자신감과 실력을 쌓아줄 것 입니다.
Other things to do (다른 액티비티)	책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런 시합에 나간다면 어떨지, 또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라고 해보세요. 이 이야기의 한 장면을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물 위나 물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시합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Book Band 10 . Journeys/Going Places - Riding the Waves

Storybook?

- 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 수업 준비 시, 미리 참고하세요.

Storybook	
2pg.	이번 이야기에는… 맥스 타이거
3pg.	타이거의 엄마 타이거의 아빠 토비 해파리 (타이거의 형)
4pg.	1 장-쉬는 날이랍니다! “모두들 타렴!” 아빠가 차 문을 열며 말했어요. “안전벨트 해야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타이거네 가족이 일주일 동안 지내는 해변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타이거가 학교에서 꽤 좋은 성적을 받아서 친구 한 명을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결국 맥스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지요. “뭐하러 가게?” 타이거가 말했어요. ”캠핑할거야!” “좋은데.” 맥스가 씩 웃었습니다.
5pg.	바닷가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토비와 타이거는 가는 내내 티격태격 댔습니다. 둘은 무슨 음악을 들을지를 가지고 다투었지요. 무슨 게임을 하느냐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만화책을 누가 읽을 차례인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6pg.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어디야?” 토비가 물었습니다. “별로 안 멀어.”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변에 가면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단다.” “같이 텐트를 치고 나서 가보자. 장거리 여행을 하고 나면 운동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거야.” 아빠가 말했습니다.
7pg.	텐트를 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토비는 엄마, 아빠와 함께 큰 텐트를 써야 했습니다. 맥스와 타이거는 둘이서만 한 텐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토비는 맥스와 타이거만 자기들의 텐트를 쓰는 게 샘이 났습니다. 토비는 텐트의 말뚝을 뽑아버렸고 텐트는 무너져버렸습니다.
8pg.	맥스와 타이거는 텐트를 또 다시 쳐야 했지요! “서둘러야겠다, 너희 둘.” 아빠가 말했습니다. “해변으로 내려와서 보자꾸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길만 따라서 오면 돼. 길을 잃지는 않을 거야.”
9pg.	“토비 진짜 짜증나.” 타이거가 투덜거렸어요. 맥스가 배낭 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기분이 풀릴걸.” 맥스가 말했습니다. “최고다! 마이크로-버기를 가져왔잖아!” 타이거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타 보자.”
10pg.	2 장- 태양, 바다 그리고 모래언덕 맥스와 타이서가 시계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자…
11pg.	그리고는 마이크로-버기에 올라타 윙하는 소리를 내며 모래언덕을 달렸습니다.
12pg.	눈 깜짝 할 새에 맥스와 타이거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토비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와있었지요.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온 다음 다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3pg.	“너희 어떻게…?” 토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름길로 왔지.” 타이거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맥스가 서핑대회 포스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14pg.	“우리 해서 우승해보자!” 타이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넌 절대 일주일안에 서핑 못 배워.” 토비가 비웃었어요. “난 작년에 배워뒀지. 우리 조에서 내가 제일 잘했다구.” “우리 모두 해보는 건 어때?” 아빠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15pg.	해변가 가게에서 모두 서핑복을 빌려왔습니다. 하지만 서핑보드는 하나밖에 없었지요. 차례를 돌려가며 타기로 했습니다. 토비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토비는 아주 잘했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최악이었죠. 심지어 보드 위에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16pg.	타이거도 매우 힘들어 하는 듯 했습니다. 몇 초는 버텼지만 금새 넘어졌습니다. 토비는 타이거를 보며 깔깔 웃어댔죠. “내가 부질없는 짓 일거라고 했지?” 토비가 비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맥스 차례였습니다. 맥스는 한 번도 서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샌들신고 했던 것 빼고). 맥스는 물가를 따라 쭉 파도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졌죠!
17pg.	“이 시합에서 내가 우승할거야.” 토비가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토비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지.” 토비가 보드를 낚아챘습니다. “이 녀석! 동생이랑 맥스도 같이 써!” 아빠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토비는 이미 자랑스럽게 걸으며 고학년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꺾어버려야 해.” 타이거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맥스가 대답했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말야.”
18pg.	“힘내렴, 얘들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맥스와 타이거에게 컵 아이스크림과 나무 스푼을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엄마 몰래 빠져나가서 토비를 꺾어버릴지 궁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맥스는 금새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습니다. 맥스는 마지막 남은 아이스크림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스푼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타이거, 좋은 생각이 있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19pg.	3 장-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모두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맥스는 마이크로-버기를 챙겼고 타이거는 뒷주머니에 아이스크림 스푼을 챙겼습니다. “너희 어디 가냐?” 토비가 물었습니다. “우리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러 가.” 맥스가 말했습니다. “참도 재미있겠다.” 토비가 비웃었어요. “꼬마들은 꼬마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난 이제 서퍼들이랑 같이 놀러 갈 거야.”
20pg.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이거와 맥스는 서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사용해서 작아졌습니다. 이번에는

	타이거가 마이크로-버기를 운전할 차례였지요. 타이거는 전속력으로 몰아서 쿵쾅거리며 모래언덕을 올라갔습니다.
21pg.	타이거와 맥스는 해변가의 암반지대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저기,” 맥스가 바위로 둘러쳐진 웅덩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연습할 수 있겠다.” “좋았어!” 타이거가 말했습니다.
22pg.	타이거와 맥스는 바위 웅덩이에서 자잘한 파도를 타며 아침 내내 연습했습니다. 한 번은, 게가 보려고 튀어 나왔습니다. 타이거가 물살을 튀기며 보드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게가 겁먹고 달아났지요. “난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아.” 타이거가 끙끙거렸습니다. “포기하지마.” 맥스가 말했습니다. “금방 요령이 생길거야.”
23pg.	4 장-해파리와 아이스크림 타이거와 맥스는 매일 서핑연습을 했습니다. 타이거와 맥스는 좀 더 무서운 파도가 있는 더 큰 바위 웅덩이를 찾았습니다. 타이거와 맥스는 항상 안전하도록 서로를 지켜보았습니다. 시합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맥스는 갈수록 잘했습니다. 맥스는 모든 종류의 묘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타이거도 잘 하게 되었지요. 맥스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4pg.	가끔씩 미니 서핑보드가 부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상관하지 않았지요-그 말은 즉 아이스크림을 더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25pg.	시합 전 날, 타이거와 맥스는 마지막 연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한 바위웅덩이에서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맥스와 타이거는 해변의 조용한 곳을 찾아내 바다에서 연습했습니다.
26pg.	맥스는 물 속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맥스가 소리질렀습니다. “해파리야!” “해파리는 쏘지않아?” 겁먹은 타이거가 말했습니다. “맞아!” 맥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아이들은 살기 위해 서핑 해야 했습니다. 타이거와 맥스는 해파리의 쏘는 촉수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모래사장으로 무사히 돌아오고 난 후, 맥스가 타이거의 등을 툭 쳤습니다. “니가 지금까지 한 서핑 중에 방금 그게 최고였어!”

	맥스가 말했지요.
27pg.	5 장-파도 타러 가자! 시합날이 되었습니다. 해변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메가폰을 잡은 사람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몇몇 참가자들 중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타이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최소한 꼴찌는 아니겠네.” 타이거가 맥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28pg.	“다음 참가자는” 메가폰을 잡은 사람이 외쳤습니다. “토비입니다.” 토비는 바다로 첨벙첨벙 뛰어들더니 보드에 올라탔습니다. 토비는 두 가지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중들이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타이거조차도 응원할 정도였습니다.
29pg.	그리고는 토비가 한 손으로 보드를 짚고 서는 묘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잘 못하고 말았죠. 토비는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토비는 실망한 얼굴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맥스의 차례였습니다. 맥스는 몇 가지 묘기를 깔끔하게 해냈지요. 타이거는 환성을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30pg.	그리고 타이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타이거의 이름이 불리자, 타이거는 손으로 물을 저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되어서 서핑을 할 수가 없었지요. 물이 번쩍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고 무서워했는지 나타났습니다. 해파리가 있었던 것이죠.
31pg.	무지막지한 파도가 그를 집어 삼키려고 할 때, 타이거가 보드 위에 올라섰습니다. 보드는 무서운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타이거는 긴장이나 해파리에 대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파도타기를 너무 즐기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해변에 닿았습니다. “재미있었어!” 타이거가 말했습니다.
32pg.	우승자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승자는 타이거였습니다! 엄마, 아빠와 맥스 모두 달려와 타이거를 축하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을 지 알았어!” 맥스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운 거야?” 아빠가 물었습니다. 타이거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파리랑 아이스크림 덕분이죠.”

	내가 져 준거야. 꼬맹이 동생이잖아